<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시티엔 선생님 새벽말씀 >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얘기하면 돌쇠라는 사람이 매일 남의 밭만 갈고 달아다니는 거지. 머슴이지, 머슴. '나는 이 팔자를 언제 뒤집어서 해동네에서 밭을 갈까. 좋다. 우리 할아버지가 해놓은 것이 그리 없지만 내가라도 살아봐야지.' 항상 남의 밭을 갈아주는데 그리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밭을 갈으면 그냥 막 갈지 않고 꼭꼭 끝까지 잘 갈아줘. 깊이 갈아줘. 시골에서 밭을 깊이 갈아주면 쟁기가 부러져. 그가 그렇게 힘들게 깊이 갈아줍니까. 건등건등하고 품삯받고 하지. 이 돌쇠는 너무 너무 밭을 잘 갈아줘. 돌짝밭이 나오면 다 캐주고, 옆에 머슴들이 "얻어먹는 거 없지만 야, 미련한 놈아. 뭣 하러 그리 소를 등빠지가 휘어지도록 쟁기를 깊게 갈고 니가 뒷바리 힘줄이 땡기도록 일을 하냐. 이 미련한 놈. 어이. 자식.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한 50년이면 남집을 벗어나고 나는 10년 만이면 벗어나것다.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래도 열심히 해. "나는 성질이 그래. 아예 성질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구,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해야 성질이 풀리고 기쁘다니까." "에이. 미련한 놈." 이러면서 해도 그렇게 밭을 깊이 가는 정신을 갖고 있는 돌쇠, 밭을 깊이 간다고 돈이 나와? 뭐이 나와? 그러나 돌쇠는 늘 희망이 있다면 이거 희망이 있어. 옛날 사람 임금이 그 보화를 어디다 밭에 감췄는데 그 보화가 이제까지 나온 근거가 없다구. 아직까지 안 나왔다구. '혹시 내가 밭갈 때 혹시 나올까?' 이런 야망은 있었지. 혹시 밭가는 사람은 밭갈 때 나올까? 논가는 사람은 논갈 때 나올까? 풀하는 사람은 풀할 때 나올까? 또 나아가서 길가는 사람은 길갈 때 나올까? 자기 직업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할 때 나올까? 지하수 파는 사람은 지하수 파다가 나올까?

돌쇠는 돌쇠 나름대로 행여 이런 때 나올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떡 받치는 거여. "돌이 또 들었구먼. 내가 오늘은 일찍 밭을 갈고 허리 좀 펴고, 사우나는 못 갈지라도 동네 샘 아줌마들 다 들어간새 한 바가지 퍼붓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하는 날인데 하다보니까 뭔가 벙벙벙 하다가 휙 뒤집어 보니까 그냥 보화가 꽉 차 있는 거여. "으악!" 하고 뒤로 훌러덩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꿈인가 생시인가 보자." 하고 보니까 생시여. 이 집 주인 아줌마가 샛밥갖고 올 때인데 얼른 덮어야지. 덮어 버렸어요.

저 건너서 봐서는 "야. 임마. 오면 오늘 한 잔 오늘 같이 먹자. 기분도 오늘 그렇다구." 뭐하냐구. "아무 것도 아녀." "내가 가서 서둘러 줄까? 오늘은 내가 같이 빼주고 싶다. 너같이 나도 살고 싶다." 니까 "아녀. 나도 그럭저럭 살아야지." "아녀. 빼던 거 빼버려." "아녀. 그것이 아녀. 오늘은 빼고 싶지 않아." "그려. 내일 빼고 그럼 오늘은 박아라." 그러고 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왔어요. 아주머니가 왔는데 "오늘 어째 밭을 시원찮게 갈았어. 오늘도 돌을 빼다가 말았어?" "아니예요. 뭐 뺄 건 다 뺏어요. 오늘 나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샛밥 갖고 그냥 가지요." "왜 이랴. 또 않던 짓을 해?" "아니 내 팔자는 무슨 팔자길래 맨날 밭만 가는지." "왜 이랴. 누가 또 바람났구먼. 저 건너 저 너머 새끼 누가 또 바람난 거 아녀?" "아녀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다가 죽었길래 밭 한 떼기 없이 죽었어요? 세상에."

"이리와. 밥이나 먹어. 내가 초근초근 하나씩 얘기해 줄게. 이리 와봐. 돌쇠가 오늘 성질을 부렸지?" "아니. 아주머니. 주인장 할멈. 내 말 좀 들어봐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 것도 안 남겨놓고 묘 하나만 남겨놓고 갔대요. 1년에 한번씩 묘깎기도 어려운데 속상해서." "그것이 아녀. 자네 할아버지도 잘 살았어. 그런데 놀음판에 손가락을 못 참아서 못 끊었어. 그래서 결국적으로 말여." "논밭이 있었어요?" "문전옥답이 있었어요?" "그 문전옥답이 다 어르신데 할아버지가 다 팔아먹은 거 아녀? 아버지는 밭 팔아먹고, 자네 아버지는 논 팔아먹었잖여." 아이고. 내 드러워 못 살겠다고.

"그러면 이 밭이 누구 거예요? 할아버지 거예요?" 하니까 이 밭을 내가 사버릴 거라고 하니까, 내가 밭 하나 없는데 언젠가는 나도 결혼하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하니까 "아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열심히 벌어야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 밭이 보통 밭인 줄 알어?" 내가 사고 싶다고. "아. 그건 우리 주인장한테 얘기할 문제고, 밥이나 먹어." '아하. 이걸 할아버지 밭이라고 하고 사면 되겠구나.' 자꾸 보

니까 자기 할아버지 것인데 뺏긴 거여. 그래서 악을 먹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서 결국적으로 밤에 가서 그 구두쇠 노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젊은이 돌쇠가 각오가 이제 대단하구먼. 돌쇠 바람이 불것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자네 할아버지한테 내가 이만저만해서 샀는데 자네가 이거 사겠어? 이 사람아. 이거 살려면 앞으로 3년 동안 꼬빡 일을 해야 살 수 있어." "그래도 좋아요. 내가 살 거예요. 내가 전부 다 팔고 소를 팔지라도 사고 싶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날부터 고민을 하는 거여. 잠이 오나, 안 오지. 좋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잠이 오겠어? 자, 소를 판다, 집을 판다, 집터를 판다, 자기를 또 판다, 자기는 머슴살이를 또 하겠다, 다 쳐보니까 그럭저럭해서 사겠어. 결국적으로서 마음을 먹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래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놈의 구두쇠 영감 꼬여서 밭을 팔아먹었다고, 불쌍한 돌쇠 불쌍하다고 모두 그랬어. 다 돌쇠 불쌍하다는 거여. 하지만 돌쇠는 그런 보화를 발견했어. 천국을 발견하듯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열심히 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했어. 어떤 소기의 목적이 있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거여. 알고 보니까 돌쇠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여. 멍청한 머슴놈이 아니라니까.

결국적으로 그 밭을 샀습니다. 결국 보화를 발견했어요. 결국 보화가 개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보화를 주도록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따르고, 저 사람도 따르고, "자네 돌쇠 자네를 보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던 사람이 소도 팔고, 논도 팔고,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누구를 데리고 농사를 짓느냐고 하는데 그렇겠지. 나도 방학 때 내려왔어. 내년에는 나도 학교 마치고 박사코스 마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깨딱하면 논밭 갈고 살겠어. 돌쇠 왜 이러나? 돌쇠가 아무래도 뜬금없이 뭔가 없이 이상해." "공부 좀 한 대로 나 좀 가르쳐 줘. 우리 나라의 전설 좀 가르쳐 줘."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좋은 전설이 많지만 옛날 옛날 정말로 그 옛날에 우리 나라에 세계적인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이제까지 안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지리공부하고, 역사공부 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여. 우리 밭에서 나올까? 어디에서 나올까? 했는데 안 나왔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에 '틀림없이 맞구나. 이게 그것이 맞구나.' 깨닫고서 "내가 아무래도 내가 사는 밭에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내가 앞으로 다 파볼 거여. 내가 밭이라고는 그거 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나는 이상하니 그것이 있는 것만 같아."

그랬더니 공부하는 사람이 "자네. 분명히 뭘 발견했구먼. 나도 거기 한 몫끼게 해줘." 하면서 같이 따르는 사람들만 같이 가게 됐어. 결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을 깨닫게 됐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돌쇠는 발견하고 말았어. 이와 같이 천국에 있는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듯이 천국이라는 보화가 이 세상에 묻혀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 보화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열쇠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화는 땅이 보화일 수도 있고, 사람이 보화일 수도 있고, 그 때 그 때 필연적인 거여. 보화가. 그 때 그 때 보화지. 자기가 찾던 것이 보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는 보화가 될 수 있고, 하늘 앞에도 보화가 될 수가 있어. 이 땅 위에. 보화가 될 수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 했다는 거여. 열심을 다 했다는 거여. 땀방울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목숨을 걸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발견했으면 전심을 다 해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야 밭에 감추인 보화에 돌쇠가 주인이 되듯이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나 같은 사람도 하나의 보화여. 시대의 보화지, 발견하기 힘들지. 전심을 다하지 못 했을 때는 값이 헐한 값이 아니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믿습니까? 돌쇠가 밭을 그렇게 갈게 된 것은 충성과 진실로 인해서 열심히 밭을 갈았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려면 깊이 얘기하고, 깊이 사귀어야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안 나옵니다. 나부터도 얘기 안하죠. 기도생활이나 산에 수도생활 오래 한 사람은 가볍지 않습니다. 겉이야기는 하지만 속이야기는 잘 안 한다구. 하겠어? 안 하지.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들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감

추인 하늘의 천국의 보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을 몰랐지요? 막연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설명도 못 하고 이룰 수가 없었고, 못 이뤘죠. 모두 천국을 이룬다고 모두 각지에서 말했지만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 천국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마음의 천국,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지난 주에 말했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둘이 늘 사랑하고, 짝사랑하다가 궁궐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별장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커피숍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여관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호텔에서도 안 이루어졌는데 가다가 보니까 산길을 가다가 이루어졌다구. 거기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여. 사랑천국이. 이와 같이 서로 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마음일체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듯이 하나가 안 됐을 때는 안 이루어지는 거여.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하나되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나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나가 될 수 없었다니까. 맞는 것이 있어야지. 교리가 맞아야지. 행실이 맞아야지. 사상이 맞아야지. 서로 진리가 안 맞으니까 사상이 안 맞게 되고 정신이 안 맞게 되고 행동이 안 맞으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여. 사랑하는 사람도 정신, 마음, 행동이 하나되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여. 서로 하나되니까 서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어. 마음주고, 몸주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천국이 사랑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덤풀 밑이든지, 감나무 밑이든지, 바위 밑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연애법으로 비유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정과 진리와 근원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한 바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일체된 바가 되고,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만큼 알아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주고 일체되었을 때 그 위치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여. 이해가 갑니까? 꼭 이 해가 다 가야 되겠어? 이 해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해가 갔어요? 믿습니까? 나는 억지로 믿지 말라 그거여. 이해가 가고 믿어야 되요. 와닿게 믿어야 되요. 거기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침기도)
만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들었습니다. 마치 천국을 발견했으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 했습니다. 지난 주 말씀과 더불어 금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은 역시 몰라서 못 할 때 많으니 가르쳐 주시고 이들이 모두 역시 가꾸어 놓으면 산의 나무와 같이 웅장한 나무가 될 것을 압니다. 볼만한 것이 되고 쓸만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모든 개성대로 잘 되고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잘 하고 잘 되야 하나님도 잘 되고, 잘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채우심이 크시고, 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김도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똑같다 했습니다. 깨닫고 의미있게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각 나라가 이 복음과 진리로 충만케 해 주시고 그런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발견해서 보화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출함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이들이 일체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이요, 기쁨의 근원을 발견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도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평강을 비노니 이들이 나와 같이 뛰고 달릴 때에 나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나와 같이 기쁨을 누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잘 되고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기성에 자는 사람들은 깨서 시대를 깨닫고 의를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상과 사고를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교훈과 그 진리의 사상 그 시대를 다시 거울삼고 온전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함과 뜻을 늘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